골든스테이트, NBA 정상 등극 커리 챔프전 첫 MVP

▲ 우승을 차지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워스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dw.com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미국프로농구(NBA) 왕좌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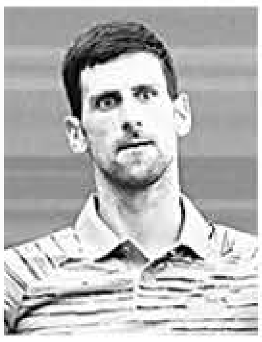
골든스테이트는 16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TD 가든에서 열린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6차전에서 보스턴을 103-90으로 제압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 승리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챔프전 정상에 올랐다.

2017~2018시즌 이후 4년 만에 챔프전 정상에 오른 골든스테이트는 팀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챙겼다. 반면 챔피언결정전 최다 우승 기록(18회)이자 14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렸던 보스턴은 최종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골든스테이트의 에이스인 스테픈 커리는 챔프전 우승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5차전까지 경기 당 평균 30.6점, 5.8리바운드를 올린 커리는 이날 6차전에서도 34점 7어시스트 7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커리는 투표권자 11명 만장일치로 챔프전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커리는 정규시즌과 올스타전, NBA 챔프전에서 모두 MVP를 차지, 'MVP 그랜드슬램' 을 달성했다.

커리는 3년 전 왼손 손등이 부러지는 큰 부상으로 한 시즌을 거의 통째로 쉬어야 했고, 팀도 최하위로 추락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시련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해 34살의 나이에도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다시 정상에 서서 '왕의 귀환' 을 알렸다.
커리가 지금과 같은 기량을 유지한다면 골든스테이트의 정상 질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거부 조코비치, US오픈 출전 사실상 '불가'



노박 조코비치(3위, 세르비아)의 US오픈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16일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스 셔 미국테니스협회 회장은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세계랭킹 3위·사진)의 US오픈 테니스 대회 참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따르겠다. 예외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고 답했다.
이에 따라 US오픈 정상을 3번 차지한 조코비치가 오는 8월 29일 뉴욕에서 막을 올리는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다. CDC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호주오픈 참가를 위해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지만 호주테니스협회에서 발급받은 '백신 접종 면제 허가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끝내 입국을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대회 4연패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당시 21회) 우승 달성 기회를 모두 놓쳐야만 했다. 그래도 조코비치는 "억지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차라리 우승 트로피를 포기하겠다." 며 백신 접종 반대 의사를 꺾지 않았다.

이후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조코비치는 프랑스오픈에 정상 참가했고, 이달 27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하는 윔블던 참가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사진=shutterstock

류현진, 팔꿈치 수술 시즌 아웃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했던 류현진(35, 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15일 '스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토론토 구단은 전날 "류현진이 곧 왼쪽 팔꿈치 척골 측부 인대(UCL) 수술을 받을 예정" 이라고 알렸다.

언론들은 이번 수술로 토론토에서 뛰는 류현진을 더는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팔꿈치 수술을 하고 복귀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데 류현진이 올해 나이 35살인 만큼 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2023년 시즌 복귀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류현진은 2020년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FA 계약을 맺었다. 이적 첫해에는 1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하며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쳤지만, 지난해부터 등판한 37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4.66에 그쳤다. 더구나 계약 기간 2년, 4,000만 달러가 남은 시점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몸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토론토 포함 구단들의 외면을 받아 메이저리그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다.

앞서 류현진은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모두 재기에 성공한 바 있다. 동산고 시절이던 2004년에 처음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고, LA 다저스에서 뛰던 2015년에는 왼쪽 어깨 수술, 2016년에는 왼쪽 팔꿈치 관절경 수술을 했다.

류현진이 팔꿈치 수술 뒤 재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메이저리그 잔류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사진=calltothepen.com